



인천스타트업파크 ‘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’ 참가 30개사 매출·신규고용 등서 큰 도움
올해도 스타트업 전문육성 기관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“스타트”

- 1 -

을 수 있다.

- 인천 스타트업파크 관계자는 “이 프로그램은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-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올해도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초부터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, 빅뱅엔젤스, 씨엔티테크, 제피러스랩, 킹고스프링 등 스타트업 전문육성 기관 5개사와 함께 발굴한 스타트업 30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.
- 유시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“개방형 혁신 클러스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협력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